

기고

화재 대피, 생명의 문을 열자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은 불씨가 곧장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시설과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부산의 노후 아파트와 대구의 다세대주택 화재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노후 건물에서 나타나는 스프링클러의 부재였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어 해당 층 소방시설로 피난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건물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확산되는 화염과 검은 연기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고 건물 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길을 잃게하여 극도의 긴장과 패닉을 일으킨다.

이때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면, 또한 피난 통로에 물건이 적재되어 대피가 어렵다면 우리는 화마로부터 생존할 수 있을까?

현행 소방법상 노후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을 정상 작동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하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갖는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는 건물 관계자의 협조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관할 소방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밀집시설이 해당된다.

안전은 결코 소방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 스스로의 준비와 협조가 함께할 때 이상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소방시설과 비상구 관리에 꾸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해남소방서 서장 박춘천

교통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은 역시 과속이다. 과속할수록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고 그로 인해 장애물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속은 시야를 좁아지게 한다. 즉 "빨리빨리"라는 조금증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라고 했다. "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쉬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관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성찰하면서, 때문에 쉬의 시간들이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시간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음침한 회색빛 종점은 다가오고 있는데도

어느덧 종점에 왔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을 마감 지어야 할 종점. 그보다 더 쓸쓸한 종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을 그 어떤 동반자도 없이 떠나야 되니까 말이다. 그렇게도 약삭같이 모아서 쌓아놓은 재산은 또 어디에 쓸까. 그야말로 먹지도, 입지도, 나누지도 못했던 물질들을. 무한한 욕망이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면서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때까지의 인생역정은 어땠을까. 돈은 모두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을까. 또한 받은 원망은 그 얼마일까.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이라고 반가워할까. 돈을 달라고, 집을 사달라고 보채는 자녀들의 말

은 귤등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때마다 피붙이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원망의 그늘을 쌓아왔을까. 종점에 다다르자야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생각에 잠겨본들 뭘할 것인가. 성서의 "육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구절도 이를 뜻하는 말은 아닐까.

이 짧은 인생을 돌보지 끝에서 빛어지는 한 점의 촛불보다도 더 못 보고 살아온 삶이 슬프지 않을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에 목말라 날뛰고 있을 것이다. 그 재물의 획득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그에 걸맞는 죄를 짓고 있을 것이다. 음침한 회색

빛 종점은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코앞에 다가오는 어두운 종점을 관념적으로는 느끼면서도 자신만은 피해갈 것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기묘모호하지 않는가.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현대문명이 발달해갈수록 더 심해져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이 순간에도 아비규환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그런 현상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길어봐도 8,90세를 못 넘기게 된다. 100세 시대라지만 100세를 넘기는 사람들은 극히 희귀하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수명의 한계는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제발 이런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그러면 재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을지도 모르기에. 과연 이런 날이 올까. 지구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다. 단, 치매 등을 비롯한 바보들의 세상이 된다면 후시 모를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 대부분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한다. 배터리는 고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전 중 발열, 외부 충격, 불량 제품 사용은 배터리 폭발 및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충·방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일정 온도를 넘어설 경우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배터리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비정품 충전기 사용, 차량 내 장시간 방치, 충전 중 외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은 명확하다. ▲정품 충전기 사용 ▲배터리 과열 시 즉시 충전 중단 ▲낙하·압력에 의한 손상 주의 ▲고온 환경에서 보관 금지 ▲취침·외출 시 충전 지양 ▲폐기 시 지정된 수거함 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리튬이온배터리 역시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면 안전한 도구이지만, 방심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박은원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음력 9월 11일)

Grid of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icons and text.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website, email, and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5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Expressway System.